

한국교회 파괴의 주범, 공로주의

한 경 호(목사, 본지 편집위원장)

요즘 내부 갈등을 겪는 교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개교회뿐만 아니라 상회(시찰회, 노회, 지방회, 연회, 총회 등)도 몸살을 앓는 경우가 많다. 총회 재판국에 고소, 고발 건수가 늘고, 세상 법정에까지 끌고 가서 다툼을 벌인다. 이 과정에서 시정잡배보다 못한 추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이전투구(泥田鬪狗)의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질 것 같아 매우 염려스럽다.

한국교회는 올해로 선교 130년을 맞이한다. 초창기, 열심히 개척하여 기독교세를 확장시켜나갈 때에는 복음에의 순수한 열정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개척, 성장기를 지나 어느 정도 교세가 자리 잡히자 양상이 달라졌다. 교만과 탐욕이 점차 고개를 쳐들고 있다. 겉모양은 일단 목사의 문제 때문에 또는 목사 장로간의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문제의 배경에 교회성장 및 목회자 성공주의라는 세속적인 목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공로의식이 자리잡고 있다. 목사는 “내가 이 교회를 어떻게 키웠는데.....”라고 생각하며, 장로는 “내가 어떻게 헌금하고 봉사했는데, 목사야 우리가 낸 헌금으로 살고, 또 떠나면 그만이지. 끝까지 남아서 교회를 지킬 사람은 나야”라고 생각한다. 교회를 개척하여 크게 성장시킨 경우 목사의 권위는 가히 절대적이다. 그러나 개척 목사가

은퇴하거나 사임한 후에는 사정이 급변한다. 장로들이 주도권을 잡고 모든 일을 한다. 요즘 목회자는 ‘청빙’이 아니라 ‘채용’된다. 말이 그럴싸해 청빙이지 실제로는 장로에 의해 채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국교회는 오늘 교단을 떠나 장로가 권력을 행사하는 교회로 점차 변질되고 있다. 장로가 되는 순간 신앙적이고 영적인 관계는 사라지고 정치적 관계로 바뀐다. 장로의 직분은 이제 권력이 되었다. 선배 장로가 새로 임직받은 장로에게 했다는 “목사는 처음부터 길을 잘 들여야 돼”라는 말 속에 오늘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 같다.

어쩌다 목사-장로간의 관계가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목사와 장로는 서로 역할이 달라서 보완하고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하게 만들어 나갈 책임을 지고 있다. 그 공동의 목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이 세상을 생명, 정의, 평화의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이런 비전은 사라지고,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 세상적으로 과시하고 자기만족을 누리려고 한다. 목사는 목사대로, 장로는 장로대로 정치적 계산 속에 개인적인 목적과 만족을 추구한다. 교회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진리의 성소가 아니라 특정인의 사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업체로 변질되고 있다. 목사의 말과 목회 정책에도 기업논리와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니 더 말해 무엇하랴! 그런 목사와 동역하는 장로 또한 같이 묻는다. 장로 본연의 위치로부터 이탈하여 협력은 사라지고, 견제와 감시, 때로는 야합이 난무한다.

교회는 물질적으로 부자가 되었다(물론 농촌교회는 예외이다). 가진 것이 많으면 세속적인 욕망이 꿈틀되고, 반드시 부패하여 타락한다. 부자 청년처럼 진정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게 된다. 최근 세계 최대의 교회를 자랑하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 일가와 관련된 고소, 고발 그리고 법원의 판결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가 어디까지 갔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실례이다.

공로주의에 대한 개신교의 입장은 단호해야 한다. 중세가톨릭이 타락했을 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공로주의가 만연했었다. 종교개혁은

이 공로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나왔다. 이제 다시 자신이 비판하고 나온 자리로 돌아가려는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든 신앙고백은 어디로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농촌교회는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공로주의적 사고방식은 꼭 교회가 커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자기를 내세우려는 본성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상 심리를 극복해나가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 오직 사용권과 청지기로서의 소명만이 있을 뿐이다. 사회에 만연한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어느새 청지기 의식을 밀어내고 공로주의적 사고방식을 깊이 심어 놓았다.

이제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자기를 철저히 버리고 비움으로서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생활 속에서 구현해야 한다. 더 가지는 것을 축복이요 은혜라 여기지 말고 더 버림으로, 비움으로 참된 영적인 권위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 길이 모두가 사는 길이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버리기 어렵다. 농촌교회 목회자들은 상대적으로 가진 게 별로 없다. 버리고 포기하기가 좀더 수월하다. 비우는 훈련을 하기 좋은 자리에 있다. 하나님은 어찌면 그런 훈련을 시켜서 예수의 정신과 삶에 더 가까이 가도록 우리를 농촌교회로 보내신 것이 아닐까? 역사의 변화는 주변부로부터 시작된다. 예수는 주변부인 갈릴리에 태어나서 평생을 그 곳에서 보내며 철저한 자기비움의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중심부를 바꾸어 놓았다. 교회내외의 갈등과 분쟁에 휘말리지 말고 좀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내일을 준비해가자. ●